

무술년 새해, 모든 분야에서 번영하는 전북 만들자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 송하진 전북도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충성과 용맹의 상징인 황금 개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은 소중히 지키고 걱정과 근심은 멀리 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삶의 터전인 전라도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저는 올해 전라북도가 천년을 지켜온 역사와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천년을 누리는 주역은 도민이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산림농정, 토달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3대 핵심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만금 사업, 금용도시 등으로 전북경제를 살찌울 성장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여행레저산업



과 탄소중심의 융복합산업으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천년고장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든든해지도록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소기업 지원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밥 굶는 청소년, 외로운 어르신, 차별받는 장애인과 여성이 없는 따뜻한 전라북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켈리버와 새만금 개발을 차질 없이 준비해 전북의 산업영토를 더욱 크게 넓혀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키워가는 지역 특화형 개발로 14개 시군이 서로 밀고 끌어주는 동반성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알리는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올 한 해를 전북의 대도약이 시작된 전환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선조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후손들에게 기꺼이 물려주고 싶은 '풍요롭고 따뜻한 보금자리, 전라북도'를 만들어가는 데에 노력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전북발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북교육”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따스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차고 새로운 기운이 온 누리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내태주 시인 잘 아시지요. 내태주 시인이 쓴 '새사람'이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요 / 날마다 새날이고 / 봄마다 새봄이고 / 사랑마다 새사랑' 그렸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이 열릴 것입니다.

봄도 그냥 봄이 아닌 새봄이 올 것입니다. 전북교육에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육. 배움과 나눔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으로 더 새로워지는 교육, 앞으로 여러분이 지켜보실 2018년 전북교육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새봄이고, 날마다 새날인 전북교육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의 찬란한 문화를 시민의 경제로 키워갈 터”

▶ 김승수 전주시장

무술년 새해 아침, 어떤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가족들 건강하고, 먹고 살 걱정 없고, 여유가 좀 있다면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 행복이 참 멀어진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새해에는 전주가 더 많이 바뀔니다. 전주역이 드디어 변신할 준비를 갖추고, 구도심에 독립영화의집도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가 팔복동에 만들어지고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전주의 외연이 더욱 넓어집니다.

새해 전주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의 꿈을 품는다. 글로벌 도시가 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도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저마다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살려서 가장 전주다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주의 찬란한 문화를 시민의 경제로 키우고, 국립농업기관이 들어선 혁신도시에 농생명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연기금운용본부 입지를 통해 금융도시로 일어서고 국가탄소산업단지가 자리를 잡으면 전주의 산업지도가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는 모습이 내일의 전주입니다. 지역연륜의 중심인 전주매일과 함께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함없는 열정으로 선진의정 구현 할 것”

▶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2018년 희망찬 무술년(戊戌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큰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한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노력들이 더 나은 시민의 삶을 구현하고 '누구나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지금의 전주가 복지선진도시이자 미래 산업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의회'를 목표로 66만 시민이 66만 가지의 꿈을 품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 복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치열한 고민과 연구로 미래의 길을 만들어왔습니다.

전주는 연 1천 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국내외의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찬란한 전통문화와 예술, 일상 속에서의 대중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가운데 탄소와 같은 미래 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전주는, 앞으로 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선진의정을 구현하고 시민 여러분의 복지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펼쳐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금개띠의 해... 도민 모두가 행복하길”

▶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2018년 무술(戊戌)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작년에는 가계부채와 청년 실업, 지진,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 보복,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넥솔론 파산 등 여러 국·내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계신 도민들과 함께 더 큰 꿈과 희망을 품으며 38명의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과 소통하며 '신뢰 받는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2018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해입니다. 후백제 왕도, 전라감영 등 천년을 이어 온 소중한 역사의 자부심으로 전라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천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북도의회는 호남을 호령했던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전주와 전북이 전라도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황금개띠 해'입니다. 예로부터 '개'는 집안의 행복을 지켜주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새해 전북경제에 활력이 넘치고 도민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도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 전북이 모든 분야에서 비상을 이끄는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찬 기운을 함께 쏟아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